

Interview
신임 회장

김준명

지난 2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제 1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6년 회장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준명 교수가 선출되었다. 1990년대 초반 본 회를 창립하여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지원에 선도적인 활동을 해온 신임 회장의 포부를 들어 보았다.



글 편집실

1.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부끄럽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2. 에이즈 사업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1990년대 초에 미국 워싱턴 의대 에이즈임상연구소(ACIU)의 에이즈 병용치료 분야에서 임상연구교수를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당시 우리나라에도 감염인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사업을 벌이는 민간단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나름대로 예방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디만 에이즈란 질병 특성상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분야이기에 협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3. 회장님의 평소 에이즈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에이즈는 다른 전염병에 비해 유별나거나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단지, 체액을 통해 전염되는 질환일 뿐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결국 제3세계의 성병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주로 여성에서 많이 감염되리라 생각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어떠한 미생물보다도 영리합니다. 따라서 완치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 개발된 약제만으로도 최선의 치료를 한다면 수명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4. 대한에이즈예방협회 6대 회장으로서 협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한 국가의 에이즈 예방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러 민간단체와 감염인 단체들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조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및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겠으며 나아가서는 감염인 자조보임과 상호이해 및 공동보조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5. 그 동안 에이즈예방을 위해 헌신해 오셨는데, 앞으로 국내 에이즈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감염인 수가 아직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에이즈 예방, 홍보, 교육 및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는 너무 적다 생각합니다. 에이즈는 감염 대상이 다양하고 이질적이라는 면에서 다른 질병과 달리 예방, 홍보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단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외국의 경우에는 한 나라에 수십 내지 수백 개의 민간단체가 특성 있게 활동하고 있으며, 감염인 단체의 활동도 무척 활발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간단체가 사회로부터의 성원과 지원에 의해 사업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이즈는 그 특성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이며, 따라서 한시적이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이며 융통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6. 올 한해 에이즈 방향과 중점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에이즈가 점차 만성질환으로 변화하면서 이제 많은 감염인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의 공포보다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이나 소외감 그리고 주위로 부터의 편견과 차별에 의해서 더욱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방향은 예방이나 홍보에 못지않게 감염인의 복지 및 후생 지원 그리고 치료 지원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미래 비전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협회는 에이즈의 예방, 홍보 및 교육과 함께 감염인의 복지, 후생 및 치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 만성화되어가는 에이즈의 특성 상 협회의 역할은 점차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멀지 않은 장래에 통일 후 결핵과 함께 에이즈가 가장 중요한 보건 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예상할 때 향후 협회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8. 끝으로, 에이즈 감염인/환자를 직접 돌보시는 의사로서 에이즈 감염인/환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류에게 수많은 전염병이 다가왔지만 우리 인류가 극복 못한 전염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즈도 언젠가는 열심히 연구하는 의학자와 과학자에 의해서 정복되고 윈치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투병 생활이지만 용기 잃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갖기를 당부합니다.